사성제, 作聖諦와 無作聖諦로 설명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㉒ 두 가지 사성제(四聖諦)

"만약 한량없는 번뇌장(煩惱藏)에 얽매인 여래장에 대하여 의혹하지 않는다면 한량없는 번뇌장에서 벗어난 법신에 대하여서도 의혹이 없을 것이며, 여래장과 여래의 법신을 말한 불가사의한 부처님 경계와 방편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곧 두 가지 거룩한 진리(聖諦)를 말한 것도 믿고 이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거룩한 진리의 두 가지 뜻을 말한 까닭이니, 어떤 것이 두 가지 거룩한 진리의 뜻을 말한 것인가 하면, 그것은 지음이 있는 거룩한 진리(作聖諦)의 뜻을 말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음이 없는 거룩한 진리(無作聖諦)의 뜻을 말한 것입니다.

지음이 있는 거룩한 진리의 뜻을 말한다는 것은 곧 한량이 있는 4성제(聖諦)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로 인해 능히 일체의 고(苦)를 알고, 일체의 집(集)을 끊으며, 일체의 멸(滅)을 증득하려고 일체의 도(道)를 닦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유위(有爲)의 생사(生死)와 무위(無爲)의 생사가 있으며, 열반도 그러하여 남음이 있는 열반과 남음이 없는 열반이 있습니다. 지음이 없는 거룩한 진리의 뜻을 말한다는 것은 한량이 없는 4성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써 받는바 일체의 고를 알고 받는 일체의 집을 끊으며, 받는 일체 멸을 증득하고 받는 일체 멸하는 도(道)멸도를 닦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덟 가지 거룩한 진리로 여래께서는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장(章)에서는 사성제를 작성제(作聖諦)와 무작성제(無作聖諦)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작(作)은 작위(作爲)로, 의도적으로 애를 써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인위적인 마음이다. 반면에 무작(無作)은 무작위(無作爲)로, 말하자면 인위적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순수성이 그대로 완전하게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지음이 있고 지음이 없는 것을 구분해 말하는 것은 이승의 사성제와 대승의 사성제를 다르다고 보는 견해에 의해서이다.

〈법화경〉을 깊이 연구한 천태 지의(天台智顗: 538~597)는 〈법화현의〉에서 네 가지 사제를 세워 생멸사제, 무생멸사제, 무량사제, 무작사제로 나누기도 했다. 이 중 무작사제에 대해서는 대승의 보살이 제법을 관찰할 때에는 사사(事事)가 이(理)에 즉(卽)하여 있기 때문에 조작이 없는 것을 아는 것을 무작이라 한다 하였다. 작(作)은 중도에 대한 미혹이 남아 있어 이(理)에 어두워 보리가 번뇌가 되고 열반이 생사가 되는 것이 고제(苦諦)이지만, 이를 통달하고 보면 번뇌가 곧 보리가 되는 것이 도제(道諦)이고 생사가 곧 열반인 것이 멸제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사사(事事)가 중도가 되므로 조작하는 것이 없으므로 무작이라 한다고 설명하였다. 원래 '무작'이라는 말은 어떤 작용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또 분별 조작이 없어 자연 그대로인 것을 뜻하는 말이다. 때로는 무위(無爲)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유마경〉에는 이렇게 말했다.

"법은 공을 거스르지 않고 무상(無相)에 따르며 무작(無作)에 응한다. 법은 아름답거나 추한 분별을 떠나고, 법은 증가하거나 감손되는 차별을 떠나며, 법에는 생성과 소멸이 없고 법은 돌아가는 곳도 없다. 법은 육근(六根)으로 포착되지 않으며, 법에는 높거나 낮은 차별이 없다. 법은 항상 머물며 움직이지 않으며 법은 모든 관행(觀行)을 여의었다."하였다.

생사를 말하면서도 유위의 생사와 무위의 생사를 말했는데, 마음에 생멸이 남아 식심(識心)이 완전히 끊어지지 못한 것은 유위며, 생멸이 사라져 식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무위다. 유루업(有漏業)으로 말미암아 수동적으로 생사에 윤회하는 것은 유위생사이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비원력을 세움으로써 능동적으로 생사에 머무는 보살의 변역생사를 무위생사라 한다.

부처님이 이승을 위한 작성제와 대승보살을 위한 무작성제를 각각 설하여 여덟 가지로 사성제를 설했다고 밝히고 있는 대목이 〈승만경〉 사성제 설명의 특징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칭명염불로 현세와 사후세계 이익 얻어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㊺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불자 여러분! 〈법화경〉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칭명염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때에 이 관세음보살을 알고 일심으로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알아듣고 모두 벗어남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가지는 사람은 설령 큰 불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나니 이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니라."

"관세음보살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환난 가운데서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 없음을 베푸시는 분이라 하느니라."

"신통의 힘을 흡족하게 갖추고 지혜의 방편을 널리 닦아서 시방의 모든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세계가 없느니라."

경에서의 말씀처럼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성불하신 부처님이시지만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32응신으로 보신을 나투시며 중생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 염불을 할 때는 수행자 본인 스스로가 무시이래(無始以來)로 지은 죄업 때문에 끝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는 중생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본원력과 가피력에 의지하여 오직 일심으로 염불을 해야 합니다. 특히 나 자신의 자력적인 능력의 한계를 절실히 통감하고 무한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염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염불수행은 원시불교 때부터 있었다

불자 여러분! 염불수행은 이미 원시불교시대 때부터 실천되어왔습니다. 〈잡아함경〉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바사닉왕이 뒤에 이르러 몸을 가지런히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 누각 위에 올라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합장하여 공경하는 마음으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세 번 '나무경례 세존여래응등정각'이라고 하니 현세 법의 이익과 후세의 이익을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증일아함경〉에서는 "모두 나무불이라고 부르세. 석가모니불은 가장 훌륭한 이로서 능히 안온함을 베푸시고, 모든 고뇌를 제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을 칭명하는 염불로써 현세와 사후 세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에서의 말씀과 같이 염불수행을 하게 되면 현세의 이익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의 내세 이익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증일아함경〉에서는 삼보를 염(念) 함으로써 무위처에 도달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무불'이라고 부르면서 모두 나의 처소에 와 현재에 공양한다. 저 부처님의 과거는 선정이 평등하여 증감이 없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불법 가운데서는 성중들이 받들어 섬긴다. 전심으로 삼보를 섬기면 반드시 무위처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나무불'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염불수행에 의해 분명히 무위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설한 '나무'는 산스크리트어의 namas를 한역한 것인데 그 뜻으로는 '귀명(歸命)', 귀의(歸依)란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이 '귀의'란 의미는 부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㉒ 뱀에 대한 비유의 경 ③

오온으로는 구할 것이 없다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를 모아서 뗏목을 엮어 그 뗏목에 의지하여 두 손과 두 발로 열심히 저어 안전하게 저 언덕에 건너갔다. 저 언덕에 도달하자 그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이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메고 갈 곳으로 가면 어떨까?'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 뗏목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인가?"

다섯 가지 집착 다발인 오온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수행하고 경을 배운다면, 그것은 뗏목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물질, 느낌, 인식, 욕구, 의식은 무상하다"고 하신 것과 "오온은 내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리를 숨김없이 드러내 보이신 것뿐만 아니라, 몸을 위험에 빠뜨리고 목숨을 내던져버린 것과 다름없다. 이제부터 이 오온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다.

이 선언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 다른 이들이 그렇게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무엇을 알게 되면 대부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진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오온이 알고 있는 것을 버리게 하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오온이 무상하다는 것만 알리려는 것이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끝이다. 다른 가르침은 없다. 그런데 다른 것을 알려고 하니 많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수행의 길은 앞서간 사람의 말을 얼마나 빠르게 알아듣고, 앞서간 사람의 길을 바로 간파하느냐의 문제이지, 앞서간 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인연이 다양하다 보니 방편의 소리가 많을 뿐이지 가르쳐야 할 것이 많은 것은 아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 던져버린 곳을 말하는 것이니 가르침은 많을 수 없다.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부처의 본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니 "바로 자네의 목숨을 내던진 곳"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무엇을 살려두려고 하면 모든 것을 낱낱이 전달할 수는 없다. 오온의 입을 막아버리려면, '오온으로는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 구했다는 것이 부질없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구한 것으로서 누구에게 말을 한다면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몸은 내가 아니다"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오온은 무상한 것이고, 그 무상한 것을 나라고 하는 것이 고통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오온을 나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할 뗏목을 계속 머리에 이는 것도 모자라, 그 뗏목 안에 무거운 물건을 얹고 무겁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어리석음인 것이다.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것은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고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새기는 것이다. 그러면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성냄이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진다.

오온이 내가 아님을 알고 나니 해탈할 것도 없이 해탈되어 버린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 이름이 해탈이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오온이 무상함을 알고 무상한 것을 나라고 하지 않으면, 다시 무엇을 찾아 나서는 일은 없다. 한 발 움직일 필요 없이 바로 듣고 바로 알면 끝이지, 움직여 알아낸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직 오온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니, 다시 오온에 대해 참구하여야 한다. 오온이 무상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 생각 일어남. 생각 없음, 생각 없음 사라짐
이 네 가지 어디에도 무념의 뜻 없네
네 가지 모두 토끼뿔 같은 줄 알아야
그때 무념이 무념이 되고
그 전의 무념은 무념이 아닌 줄 알게 되네
오온이 사물을 보고 있으니
스스로는 알아야 할 것을 다 알아버렸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심장구멍·고혈압·호흡곤란까지…
기로에 선 어린생명

스리랑카에서 온 말리트씨 딸 미실캬라 태어나자마자 치료실 행
3000만원 병원비로 지불…매일 100만원씩 갚아야 할 1500만원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